

朝鮮漆의 한 특징에 관하여

— 문헌상의 黃漆을 中心으로 —

李 宗 碩

여기서 朝鮮漆이란 옷나무에서 채취되는 옷칠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보다 광범한 의미에서 木工藝의 표면 도장용 칠을 모두 통칭하는 용어로서 朝鮮漆이라 하였다. 그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黃漆에 관하여 해명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황칠에 관한 문제는 지난 一〇여년간의 숙제였다. 맨처음 羅州의 扇匠으로부터 황칠에 관한 단서를 얻은 뒤 여러 문헌에서 그때그때 단편적인 기록을 발췌하고 또 現地출장의 기회가 있을 적마다 수소문하여 조금씩 의문을 풀어왔다. 그럼에도 이미 황칠의 사용이 단절된지 오래기 때문에 現地조사는 뜻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아쉽게 그지없지만 황칠이라는 말조차 있어 버린 住民들과는 어찌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황칠 그 자체는 매우 소중한게 개발할 여지가 있는 朝鮮漆의 한 가지 임에 틀림이 없다. 그 칠기능을 재생활수만 있다면 한국의 在來木漆공예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터다. 앞으로 이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가 되리라 믿는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소망에서 쓴다. 비록 그동안의 문헌 섭렵과 현지 조사는 불충분하지만 우선 試論을 내놓아 同好들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특히 공예는 이론에 앞서 실제작자로서의 工藝家의 작업이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製作에 실용 시험되기를 기대하는바 크다.

一

一 二세기 초 고려 肅宗 무렵의 中韓사전인 鷄林類事^①에 『漆曰黃漆』이라 對譯하였다. 三百五三個의 단어가 수록된 가운데 漆에 관해서는 유일 한 기록이다. 당시 한국에서 행해진 칠은 黃漆밖에 없었던 것인가. 대체 黃漆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이 속속 꼬리를 물게 된다. 方鍾鉉은 「계림유사 연구」라는 논문^②에서 黃漆을 한국어로 『황칠』이라 읽었다. 그리고 鷄林志를 인용하여

『고려의 황칠은 섬에서 난다. 六월에 樹液을 채취하는데 빛갈이 金과 같으며 벌에 쪼여 건조시킨다. 본시 百濟에서 나던 것인데 지금 浙江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新羅漆이라 한다』^③

고 소개하였다. 곧 계림유사의 황칠과 계림지의 황칠이 동일한 물질로 본 것이다. 그리고 황칠이 섬에서 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一六세기 중엽에 간행된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다.

『제주에서 나나니란 이름을 황칠이라 하고, 이 땅에서 나나니란 붉나무 진이라』^④

위의 해석은 곧 황칠이 일반적인 옷칠과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황칠은 한반도 어디서나 채취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도서지방 특히 濟州 특산물임을 명시하였다. 물론 옷칠과 마찬가지로 나무진이 되 옷칠 처럼 겹치지 않고 黃金빛을 띠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高麗圖經에서는 황칠이 羅州의 조공품이라 하였다.^⑤

三

황칠이 일반적인 옷칠과 다른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칠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게 순서일 것 같다.

검은 옷칠의 樹液이 채취되는 옷나무는 옷나무과에 속하는 落葉活葉喬

하는데 아주 따뜻한 지방에서만 자라며 해발 七백 m 이하의 땅에 한한다. 그 분포는 濟州島 莞島 大黑山島 於靑島 및 慶南일부에도 야생한다. ① 이들 지역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羅州牧관할 지역에 속한다.

황칠나무가 외국에도 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亞熱帶性 식물인 본포하는 중국 남부와 일본九州 등지에도 있을 가능성이 많다. 植物圖錄에서는 그 분포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塗料에 있어 한국産이 일본 것보다 더 황색을 띠다고 하므로써 日本에서도 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林園十六志에서는 唐書를 인용하면서 중국 江浙之間에서도 역시 황칠이 나지만 오로지 일본에는 그 나무가 없어서 藤黃을 옷칠에 넣어서 황칠에 대용한다고 하였다. ② 등황은 무기염료이므로 식물에서 채취되는 게 아니며 칠에 교합해서 누런빛을 띠게 하는 염료이다.

그런데 근래 처음으로 황칠에 관하여 거론한 洪思俊은 황칠이 百濟시대 수출품의 하나라고 주장, 『中國기록에서는 엄연히 백제국의 특산물로서 唐에서 백제국에 주문하여 戰鬪用 갑옷에 황금색을 지탕하던 塗料』라고 하였다. ③ 황칠이 수출품이었다는 지론의 근거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측의 옛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즉 冊府元龜에 보면 唐太宗 貞觀一九年(백제 義慈王九 年·六四五)조에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金漆을 채취해다가 山文甲에 칠하였다는 내용이며 ④ 여기서 金漆이란 황색 칠로서 황칠이라 해석한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鷄林志의 新羅漆은 운도 사실은 수출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생길 발이라 할만하다. 신라 땅에서 황칠을 굳이 신라칠이라 이름붙일 필요가 없으며, 그것이 海外로 나갔을 때 비로소 신라특산의 칠임을 가려서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황칠은 결코 중국에 도 없는 것이거나 더러 있다라도 매우 귀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혹은 중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量産되거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될만큼 우수한 황칠이 채취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한국 내에서도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황칠 나무가 과연 어떠한 나무인가에 대해서는 전문이 구구했었던 것 같다.

樹種의 해설에 있어서 문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古今圖書集成의 朝鮮國土産考條에서는 『황칠나무는 종려나무에 유사하다』고 하였다. ⑥

柳傳의 物名考에서는 황칠나무가 小榎와 비슷하나 크다고 하였다. ⑦ 榎木은 同書에서 가래나무보다 잎이 작다고 하였는데 植物圖錄에서는 팽나무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가래나무든 팽나무든 낙엽활엽수이므로 여름철에 한하여 비슷한 느낌을 줄는지 모르나 유사종이 될수는 없다. 더욱 혼란을 빚고 있는 경우는 황칠나무와 붉나무가 같다고 본 점이 다. 앞서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에서 황칠을 『붉나무 진』이라 한 바 있는데 ⑧ 그후의 기록들에서는 계속 同一視한 기록이 허다한 것이다.

山林經濟에서는 千金木이란 항목에서 그 씨가 약에 많이 들어가고 그 汁液은 황칠이 되며 樹脂는 安息香이 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공지가 많이 심어두면 땅이 消渴함을 다스리고 지팡이를 만드는데도 이용된다고 하였다. ⑨ 千金木은 매우 독한 성질이 있어서 俗信에서는 辟邪性을 인정한다. 흔히 잣곤을 만드는데, 그것은 구슬을 佩用하면 부정함을 막아낸다 ⑩고 하였다. 山林經濟에서는 확실히 千金木에서 황칠이 채취된다고 하였고 또 安息香같은 한방 약재도 얻음을 밝혔다. 다만 나무의 汁과 脂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분명히 하지는 못했다. 安室향이란 漢方에서 구충제나 나태 약재로 쓰는 것으로 맛이 맵고 독하다.

그런데 林園十六志에서도 山林經濟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황칠나무를 膚木·千金木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⑪ 여기서 膚木이란 붉나무의 한자명이다. 千金木 역시 붉나무의 이칭이니만큼 임원실서류지의 기록은 산림경제의 그릇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붉나무는 옷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므로 황칠나무와는 엄연히 다른 樹種이다. 붉나무는 지방에 따라 五倍子나무 굴나무 붉나무 뽕나무 등으로 부르며 한자로는 膚木 千金樹 이외에도 栲·鹽麩木·木鹽·山鹽 菁·備 등으로도 쓴다. 오배자는 염료로 쓰는 것이며 붉나무의 수액은 약용의 安息香이 된다. 그 분포는 한국 일본 만주 등지에 퍼져 있다.

며 植栽를 많이하는 편이어서 그리 귀한 식물이 아니다. ② 이점 物名考에서는 이미 간과하고 황칠나무와 붉나무를 별개 항목으로 다루었다. 다만 안식향에 대해서 붉나무에선 전혀 거론치 않았고, 도리어 황칠나무에서 안식향을 언급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③

五

황칠나무의 自生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동안 南海岸과 濟州 지방을 수소문해 보았다. 그러나 黃漆자체를 아는 이가 극히 적어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一九六六年경 羅州에서 만난 梧葉扇의 扇匠은 扇面에 황칠을 칠했다고는 옛일을 전혀 들었을 뿐 직접 제작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했다. 다만 그는 海南의 甫吉島 등지가 황칠의 산지로 알고 있다고 전해주어 일루의 실마리를 잡아주었다. 몇몇 同學들에게 부탁했지만 별무소식이었고 아직도 甫吉島에 대한 선의문을 가진 채 답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莞島에서 가까스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象山 중턱에 올라가면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나 산이 온통 벗어진 오늘날에는 황칠나무 역시 회초리만한 것 밖에 없을 것이므로 황칠의 채취가 어려울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직접 황칠採取의 경험이 없는지 상세한 증언을 해주지 않고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근래 濟州島를 들르는 기회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했는데 夫宗休교수가 한라산의 남쪽 七〇〇m 지점, 수악溪 부근 路邊에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수액의 채취 방법은 옷나무의 경우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교시해 주었다.

목질部의 고장으로 알려진 남해안의 統營에서 조차 황칠을 하는 이가 없었다. 무형문화재의 小木匠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千相源씨는 황칠에 대해 나무도 아는 바가 없어 안타까웠다. 이미 황칠의 기능이 끊어지지 오래기 때문일 것이다. 더러 황칠의 遺品을 대하더라도 그것이 황칠인지 가려볼 수 있는 이가 극히 적지 않을까. 옷칠이 그런대로 명백

을 이어오는데 비하여 황칠은 세인의 이목에서 아주 살아져 버린 것 같다. 林園十六志에 의하면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황칠이 다소는 계승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주방가구를 소개하는 가운데 소반 항목에서 『統營의 紋木盤으로서 황칠한 것이 佳品이라』고 하였다. 紋木의 소반이란 곧 木理가 흰히 들여다보이는 목공예품이므로 여기에는 황칠이라야 알맞다. 그러므로 一九세기 초까지도 황칠제품의 좋은 점을 아는 이가 있어 귀히 여겼다는 얘기가 된다.

황칠나무의 진은 음력 六월에 나무줄기의 表皮에 다 칼로 금을 그어서 樹液이 배어나오게 한다. 이런 방법은 옷나무 진의 채취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옷나무 진은 樹皮에 나오자마자 즉시 검은 빛으로 변색되고 또 水分의 함유량이 적다. 이에 비하여 황칠나무의 수액은 처음부터 누런 빛을 띠고 있고 특히 수분을 많이 함유해, 말하자면 특정한 막걸리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황칠의 수액을 병에 받아 놓으면 맨 밑에는 앙금이 가라앉고 위로는 말간 옷물이 든다고 한다. 앙금층의 수액은 투명도와 광택이 적어 下質에 속하는 반면에, 옷물은 맑고 윤이 나지만 여러번 거듭 칠해야만 일정한 두께로 입혀진다고 한다.

황칠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즘의 락카와 같은 透明塗料이다. 옷칠이 처음부터 검은 것이고 바탕의 木理를 볼 수 없는 불투명 도료인데 비하여, 황칠은 유리같이 속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부채에다 콩맹물을 칠한 예가 있는데 이것 역시 일종의 투명도료이다. 콩맹물은 특정한 것일수록 누런 빛이 더 나고 접착력이 높는데, 반대로 말갱물일수록 투명도가 높으나 접착력이 약하기 마련이다. 그점 황칠과 유사성을 띤다.

이와 유사한 근자의 화학 제품으로는 영국 레퀴텍社製의 아크릴系 水溶性 樹脂(Matt medium, Gel medium, Glose polymer medium)가 있다. 이것은 물로 풀어 쓰는 것이나 일단 굳은 이후엔 습기에 강하고 抗破斷性이 강한 무색투명 수지여서 畫家들이 표막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연 수지인 黃漆은 이 아크릴계 수지와 매우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황칠을 翹面에도 칠할 수 있다는 것은 락카나 옷칠과

는 다른 항과 단성의 장점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겨지는 것이다. 뿐더러 황칠은 금빛을 띠면서 바탕의 나무결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한다. 그 무공예품을 한층 화사하게 치장하는 도료로서도 최상이다. 황칠의 효과를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木物(백골)에다 먼저 치자물을 올린 뒤 황칠을 한다고 한다. ㉞

한국의 목칠공예가 자연 木理의 효과를 귀히 여기는 기풍을 갖고 있다면 그 효과의 가장 화사한 치장 방법이 아마 황칠이 될 것이다. 황칠은 일반 식물성 기름에 의한 油漆과도 엄연히 다르기 마련이다. 南道の 家具에서 이른바 용목의 家具材를 으뜸으로 손꼽고 또 統營 小木匠의 雷紋籠이란 것도 어찌면 황칠 같은 좋은 塗料가 있었기 때문에 발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註]

- ① 고려 肅宗 연간에 한국을 방문한 宋나라 孫穆의 저서이다.
- ② 方鍾鉉著 「鷄林類事研究」 東方學志 2 輯下編에 수록. 延世大 발행 一九五五년.
- ③ 「鷄林志」에 「高麗黃漆生島上 六月刺取 漆色若金 日瀑則乾 本出百濟 今浙人號新羅漆」으로 하였다.
- ④ 한글과 吏讀로서 토를 달고 해석한 책인데 한자로는 『産濟州名曰黃漆産 此土者名曰火乙叱羅毛』라 하였다.
- ⑤ 「高麗圖經」土産條 P. 一四一 民族文化推進會 발행 一九七七.
- ⑥ 鄭台鉉著 「韓國植物圖錄」 P. 二八三 教育社 발행 一九五七.
- ⑦ 李圭景著 「五洲衍文長箋散稿」上 P. 二四六 物産辯證說
- ⑧ 李瀛著 「星湖僊說」人事門 生財條에 『平安道 無漆木必市於南 土非無漆也 畏宮賦民不植也』라 하였다.
- ⑨ 「朝鮮の物産」 P. 三九五~三九七 朝鮮總督府調査資料一九二六.
- ⑩ 南廣祐編 「古語辭典」 東亞出版社 발행 一九六〇.
- ⑪ 전거 「韓國植物圖錄」 P. 四一五
- ⑫ 徐有築著 「林園十六志」 瞻用志卷三 設色之具 油漆條(제二권 P. 五五五

서울 大古典刊行會 영인 一九六七) 黃漆 항목의 설명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群芳譜云 今廣浙中出一種漆 取漆物黃澤如金 即 唐書所謂黃漆 是知中國 浙江之間亦産 此漆惟日本無其種 但用藤黃和漆以代黃漆云』

- ⑬ 洪思俊著 『文獻에 나타난 百濟産業』 百濟研究 卷三 頁 P. 四九~五〇 忠南大學校 一九七二年
- ⑭ 「遣使於百濟 國中採取金漆 用塗銖甲 皆黃紫引曜色 邁兼金 又以五綵梁玄金 製爲山文甲 云云』
- ⑮ ③참조
- ⑯ 陳泰夏著 『鷄林類事研究』 P. 三二五
- ⑰ 「古今圖書集成」을 인용 『黃漆樹似棕 六月取汁 漆物如金』이라 하였다.
- ⑱ 柳惲著 「物名志」 卷四 木條 P. 一一七 文雅社 영인 一九七四.
- ⑲ 「黃漆 樹似小榎而大 六月取汁 漆物黃澤如金 東浴謂之황 云云』
- ⑳ ④참조
- ㉑ 洪萬選著 「山林經濟」 卷三 種樹 山野果品條
- ㉒ 전거 「山野經濟」 卷一〇 救荒 辟瘟方條
- ㉓ 전거 「林園十六志」 瞻用志 設色之具 油漆에서 黃漆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㉔ 「黃漆 膚木 一名千金木 其脂爲水安息香 其液爲黃漆 舊産耽羅 今近南州 郡皆有之……凡黃漆漆物 先用梔子汁爲底則色益鮮明』
- ㉕ 전거 「韓國植物圖錄」 P. 二八一
- ㉖ 전거 「物名考」 P. 一一七
- ㉗ 「黃漆……而取其清如油者爲水安息香 乾而作塊爲乾安息香 未如果與安南 所産者 不爽耶』
- ㉘ 전거 「林園十六志」 瞻用志 卷二 登槃諸具(제二卷 P. 五二三)
- ㉙ 「槃……統制營 文木槃之黃漆者亦佳』
- ㉚ ②참조

(季刊美術 主幹)